

병원 종사자의 성 역할 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이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Gender Role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n the Prejudice Against Male Nurses of Hospital Workers

최주희*, 장철훈**, 김성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학과의교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진단검사의학교실**

Ju-Hee Choi(gongjoo79@hanmail.net)*, Chul-Hun Chang(cchl@pusan.ac.kr)**,
Sung-Soo Kim(tigerkss@pnu.edu)*

요약

여성이 대다수인 간호전문직에 남자간호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그들은 성 고정관념에 따른 사회적 장벽에 부딪히며, 부서배치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 역할 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이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양성성 집단은 성 고정관념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으며, 병원종사자들은 남자간호사들이 일반인들에게 낯설고 생소하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같은 병원의 특수 부서에서 주로 일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성 고정관념은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양성 평등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성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간호조직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남자간호사 | 병원 종사자 | 성 역할 정체감 | 성 고정관념 | 편견 |

Abstract

As more and more males are participating in the female dominated nursing profession in Korea, they are facing a number of discriminations such as department assignment on the job because of male gender stereotyp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spital workers's gender role identity, gender stereotyp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attitudes and gender prejudice against male nur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ndrogynous group had lower gender stereotypes and lower prejudice against male nurses than those of the other groups. Hospital workers had a strong tendency to believe that male nurses should work mainly in special departments such as emergency rooms, intensive care units, operating rooms and they think that the male nurses are not fit for caring patients because of the patients' unfamiliarity with male nurses. Gender stereotyp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prejudice against male nurses. Therefore, hospitals should consider developing a detailed plan to encourage a culture of gender equality by tackling the existing prejudice against male nurses so that male nurses can get the same opportunities as female counterparts in terms of department assignment and job promotion.

■ keyword : | Male Nurses | Hospital Workers | Gender Role Identity | Gender Stereotype | Prejudice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17년도 제 57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합격한 19,473명 중 남학생은 2,134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10.96%를 차지하였다[1]. 국내 간호학과 재학생 중 남학생 비율은 2001년 전체 정원의 2.8%에서 2014년에는 15%로 증가하여[2], 남자간호사의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현장에서 남자간호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이 대다수인 간호전문직 내에서 남자간호사들은 성 고정관념에 따른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고, 스스로 설 자리를 찾아야 하는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3].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손행미 등[3]의 연구에서 일부 대상자들은 남자간호사도 간호직에 어울리는 적합한 인력이며, 남성과 여성 양성이 간호직 내에 공존함으로써 간호조직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일부 대상자들은 평생직으로서 간호직에 대한 갈등과 불안함을 갖고 타 직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였다.

특히 남자간호사들은 일반병동보다는 특수파트에 국한되어 있으며[4], 이러한 부서의 배정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남자간호사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남자간호사들은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간호행위를 거부당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거부 경험은 남자간호사들의 역량 확보 및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6].

고정관념은 특정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집단적 생각이다[7]. 성 고정관념은 성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 고정관념을 의미하며[8], 사회는 남녀의 성에 따른 차별화된 행동양식을 기대한다. 성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낳게 하는 기제로서,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고 일정하게 규정하여, 특정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정당화시키기도 한다[9].

성별에 따라 집단과 사회에서 기대되고 학습되는 행동이나 태도, 인간적 특성을 성 역할(gender role)이라고 하며, 이러한 성역할 정체감은 남녀 본래의 성별 차이에 따라 발달되기 보다는 전통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

고 있는 성 역할이 사회화됨으로써 가족·학교·대중매체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10].

일반적으로 성 역할은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nity)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되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수의 문화에서 성 역할의 남성성은 독립적, 지배적인 특성을, 여성성은 따뜻하고 민감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Bem의 양성성 이론에 따르면, 한 개인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두 특성을 동시에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혹은 한쪽 성역할 특성은 높고 또 다른 성역할 특성은 낮은 수준으로 가질 수 있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두 특성이 동시에 높은 양성성을 가진 개인이 모든 행동 특성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 매우 적응적이라고 하였다[12].

성 역할 정체감은 개인의 사고와 행위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13], 국내 선행연구를 보면 성 역할 정체감에 따른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이나[14], 학교적응행동의 수준을 확인한 연구[15],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방어유형과의 관련성[16]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남자간호사의 성 역할 정체감과 관련하여서는 성 고정관념,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와와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와[17] 성역할 갈등과 직무몰입, 간호전문직관,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18][19].

그러나 남자간호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편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실제 남자간호사들이 함께 근무하게 되는 병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남자간호사들은 병원 조직 내에서 승진, 부서 배치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고[3],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종사자들이 성 역할 정체감이나 성 고정관념으로 인한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면 남자간호사들의 현장 적응을 어렵게 할 것이다.

편견은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태도를 말하며, 신념적 측면, 감정적 측면, 행동적 측면을 포함한다[20]. 김혜숙[21]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사회적 차별로 귀결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 역할 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이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남자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종사자들의 성 역할 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이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2.1 대상자의 성 역할 정체감을 확인한다.
- 2.2 대상자의 성 고정관념을 측정한다.
- 2.3 대상자의 남자 간호사에 대한 편견을 알아본다.
- 2.4 대상자의 성 역할 정체감과 성 고정관념,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의 관계를 확인한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병원종사자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이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실제로 남자간호사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소재의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병원 종사자들이다.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언제든 연구에 대한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임의표집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들 중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를 결정한 261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 4부를 제외하고 최종 257부의 설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전 P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의면제 승인을 득하여 실시하였다(IRB NO. H-1608-0006-045).

3. 연구 도구

3.1 성 역할 정체감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을 확인하기 위해 Bem의 양성성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한국 성 역할 검사(KSRI)를 김지현 등이 축약하여 재구성하고 타당화한 한국 단축형 성 역할 척도(KSRI-SF)를 사용하였다[12]. 본 도구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두 요인을 각각 5문항씩 포함하고 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고 김지현 등[12]이 제안한 대로 중앙치 반분법(Median Split Method)을 이용하여 성 역할 정체감을 구분하였다. 즉 중앙값을 기준으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높으면 양성성 유형, 남성성 점수는 높지만 여성성 점수가 낮으면 남성성 유형, 남성성 점수는 낮고 여성성 점수가 높으면 여성성 유형으로 구분한다. 또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값보다 낮으면 미분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김지현 등[12]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0.8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2로 나타났다.

3.2 성 고정관념

성 고정관념 측정을 위해 김동일[22]이 한국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성 고정관념은 심리적 특징, 사회적 역할, 직업 및 신체적 특징 등 여러 가지 상호독립성을 띠는 요인들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들을 수용하면서도 단일성을 지닌 개념이다[23]. 따라서 본 도구는 성 고정관념을 5가지 하위 요소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정적 성 고정관념 9문항, 사회적 성 고정관념 3문항, 직업/외형적 성 고정관념 9문항, 심리적 성 고정관념 7문항, 지적 성 고정관념 5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이동재[24]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신뢰도 Cronbach's α 는 0.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3이었다.

3.3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인식 등 직접적인 진술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었다. 다만, 송미승 등[25]의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남자간호사에 대한 Q 진술문 31개 중, 남자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신념, 즉 편견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별하여 이를 의료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가인 P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토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전체 설문 문항수를 고려하여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의 내용은 ‘남자간호사는 무뚝뚝하고 친절하지 않다’, ‘남자간호사는 대범하고 진취적이다’, ‘일반인들에게 남자간호사는 낯설고 많이 생소하다’, ‘남자간호사는 직업에 대한 편견 때문에 결혼하기 힘들 것이다’, ‘남자간호사는 투박하고 섬세하지 못하여 간호업무 잘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남자간호사들은 의사들과 갈등이 많을 것이다’, ‘사람들은 남자간호사에게 간호환자를 불편해 한다’, ‘남자간호사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같은 병원의 특수 부서에서 주로 일할 것이다’, ‘간호사는 남자의 직업으로는 비전이 없어 보인다’, ‘남자간호사는 안정된 직업이 아니며 평생직이라고 인식되고 있지 않다’이며, KMO와 Bartlett검정결과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임을 확인하였고($p=.000$),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2요인 구조로 나타났으며 전체 10개 문항의 내적신뢰도 Cronbach's α 는 0.81로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병원종사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냈으며, 성역할 정체감과 성 고정관념,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분류는 중앙치 반분법을 사용하였으며, 병원종사자들의 특성

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성 고정관념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확인하였으며, 사후검정은 Tukey test를 적용하였다.

성 역할 정체감 분류에 따른 성 고정관념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은 ANOVA로 확인하며, Tukey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성 고정관념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의 상관계수(r)와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관련 특성

병원종사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관련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18.3%(47명), 여자는 81.7%(210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46.3%(119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32.7%(84명), 40대 13.2%(34명), 50대 7.8%(20명)의 분포를 보였다. 미혼이 59.5%(153명)이고 기혼인 대상자가 40.1%(103명)이었으며, 기타라는 응답도 0.4%(1명) 있었다. 학력은 대졸인 자가 80.9%(208명)로 다수를 차지했고, 대학원 이상인 자도 17.9%(46명) 포함되어 있었다. 직종별로는 간호직이 49.8%(128명)로 가장 많았고, 행정 및 기타 직종 26.5%(68명), 보건직 16.3%(42명), 기타 의료직이 7.4%(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근무부서를 보면 일반병동 22.2%(57명), 응급실, 수술실 등의 특수 부서가 15.6%(40명), 행정 및 기타부서가 34.2%(88명)이었으며, 감염관리팀, 영양팀, 약제부 등 진료지원부서가 28.0%(72명)이었다.

근무연수는 1년 미만인 자가 15.2%(39명), 1년 이상 5년 미만인 자가 33.5%(86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가 19.8%(51명), 10년 이상 20년 미만 16.7%(43명),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14.8%(38명)이었으며, 대상자 중 가족이나 친척 중 남자간호사가 있다고 응답한 자는 5명으로 배우자, 사촌, 삼촌이 남자간호사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남자간호사와 실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8.8%(74명)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근무관련 특성 (N=257)

변수	특성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47	18.3
	여자	210	81.7
나이	20대	119	46.3
	30대	84	32.7
	40대	34	13.2
	50대	20	7.8
결혼 상태	미혼	153	69.5
	기혼	103	40.1
	기타	1	0.4
학력	고졸	3	1.2
	대졸	208	80.9
	대학원이상	46	17.9
직종	간호직	128	49.8
	기타 의료직	19	7.4
	보건의직	42	16.3
	행정 및 기타 직종	68	26.5
근무 부서	일반병동	57	22.2
	특수부서*	40	15.6
	진료지원부서**	72	28.0
	행정 및 기타부서***	88	34.2
근무 연수	1년 미만	39	15.2
	1년 이상 5년 미만	86	33.5
	5년 이상 10년 미만	51	19.8
	10년 이상 20년 미만	43	16.7
	20년 이상	38	14.8
가족이나 친척 중	남자간호사가 있다	5	1.9
	남자간호사가 없다	252	98.1
남자간호사와	근무경험이 있다	74	28.8
	근무경험이 없다	183	71.2

*특수부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진료지원부서: 약제부, 영양팀, 감염관리실 등
 ***행정 및 기타부서: 원무팀, 총무팀 등 기타부서

2.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병원종사자들의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된 결과는 [표 2]와 같다. 남성성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자신감이 있다’점수가 4.54(±1.18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박력이 있다’문항의 점수가 3.90(±1.227)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들의 남성성 점수 평균은 4.31(±1.051)점이며, 중앙값은 4.40점이었다.

한편 여성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친절하다’로 4.76(±1.147)점이었으며, ‘다정다감하다’문항이 4.65(±1.21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여성성 점수의 평균은 4.71(±1.083)점이며, 중앙값은 4.80점이었다.

[표 3]은 병원종사자들의 특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점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 남자의 남성

성 점수가 4.61(±0.95)점으로 여자의 남성성 점수 4.24(±1.06)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2.199, p<0.05), 남성성 점수는 결혼 상태에 따라서도 기혼인 대상자가 4.52(±1.08)점으로 미혼인 대상자의 남성성 점수 4.16(±1.02)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666, p<0.01, 기타 1명 제외).

여성성 점수는 결혼상태(t=-2.429, p<0.05, 기타 1명 제외), 학력(F=4.154, p<0.05), 직종(F=2.930, p<0.05), 근무연수(F=4.104, p<0.01)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N=257)

구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 표준편차	중앙값
남성성	씩씩하다	4.47	1.199	4.31 ± 1.051	4.40
	대범하다	4.17	1.216		
	박력이 있다	3.90	1.227		
	의욕적이다	4.44	1.201		
	자신감이 있다	4.54	1.182		
여성성	상냥하다	4.72	1.228	4.71 ± 1.083	4.80
	다정다감하다	4.65	1.210		
	친절하다	4.76	1.147		
	따뜻하다	4.75	1.149		
	온화하다	4.68	1.139		

여성성 점수는 나이에 따라 50대의 여성성 점수가 5.15(±1.11)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 4.96(±1.03)점, 30대 4.86(±1.11)점, 20대 4.46(±1.0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으며(F=4.595, p<0.01), 사후검정에서 30대와 50대의 여성성 점수는 20대의 여성성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미혼인 경우 보다 기혼인 경우 여성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고졸인 경우 보다 여성성 점수가 낮았으며, 행정 및 기타 직종의 여성성 점수는 간호직의 여성성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여성성 점수는 5.19(±1.05)점으로 1년 이상 5년 미만 집단의 4.42(±0.96)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병원종사자들을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34.2%(88명)가 양성성 집단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미분화 집단은 32.7%(84명), 여성성 집단이 17.1%(44명), 남성성 집단이 16.0%(41명)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근무관련 특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N=257)

변수	특성	남성성			여성성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4.61	0.95	2.199*	4.89	0.96	1.289
	여자	4.24	1.06		4.66	1.11	
나이	20대 a	4.16	1.00	1.679	4.46	1.02	4.595** (b,d)a)
	30대 b	4.40	1.09		4.86	1.11	
	40대 c	4.55	1.24		4.96	1.03	
	50대 d	4.39	1.05		5.15	1.11	
결혼 상태***	미혼	4.16	1.02	-2.666**	4.57	1.00	-2.429*
	기혼	4.52	1.08		4.90	1.15	
	기타	4.00	0.00		6.80	0.00	
학력	고졸 a	4.87	1.03	2.501	5.13	1.03	4.154* (a)c)
	대졸 b	4.24	1.04		4.62	1.07	
	대학원이상 c	4.58	1.09		5.10	1.08	
직종	간호직 a	4.24	1.12	0.425	4.53	1.16	2.930* (d)a)
	기타 의료직 b	4.40	0.88		4.78	0.88	
	보건직 c	4.29	1.04		4.79	1.13	
	행정 및 기타직종 d	4.40	0.98		4.99	0.88	
근무 부서	일반병동	4.22	0.98	0.662	4.56	0.94	2.479
	특수부서	4.32	1.27		4.39	1.32	
	진료지원부서	4.22	1.09		4.78	1.01	
	행정 및 기타부서	4.43	0.95		4.89	1.08	
근무 연수	1년 미만 a	4.13	1.15	2.346	4.58	1.06	4.104** (e)b)
	1년 이상 5년 미만 b	4.11	0.90		4.42	0.96	
	5년 이상 10년 미만 c	4.53	0.87		4.84	1.06	
	10년 이상 20년 미만 d	4.34	1.42		4.83	1.23	
	20년 이상 e	4.59	0.91		5.19	1.05	
가족이나 친척 중	남자간호사가 있다	4.52	0.41	0.459	4.12	1.65	-1.230
	남자간호사는 없다	4.30	1.06		4.72	1.07	
남자 간호사와	근무경험이 있다	4.32	1.21	0.164	4.59	1.31	-0.981
	근무경험이 없다	4.30	0.98		4.76	0.98	

*p(0.05, **p(0.01)(Tukey test), ***기타 1명 제외(t-test)

[표 4]는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병원종사자들의 특성에 따라 성 역할 정체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남성성 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자는 양성성 집단이 가장 많은 38.3%(18명)이었으며, 미분화 집단이 23.4%(11명), 여성성 집단 21.3(10명), 남성성 집단 17.0%(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미분화 집단이 34.8%(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성성 집단 33.3%(70명), 여성성 집단 16.2%(34명), 남성성 집단 15.7%(33명)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여성성 점수에서 차이를 나타냈던 나이에 따른 분포는 20대는 미분화 집단이 40.3%(48명)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양성성 집단이 각각 41.7%(35명), 44.1%(15명), 40.0%(8

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 모두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던 변인은 결혼 상태였으며, 미혼인 대상자의 38.6%(59명)가 미분화 집단으로 분류되어 가장 많았고, 기혼에서는 양성성 집단이 43.7%(45명)로 가장 많았다.

학력에 따라 대졸인 경우 미분화 집단이 36.5%(76명)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인 경우는 양성성 집단이 50.0%(23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간호직은 39.8%(51명)가 미분화 집단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의료직은 양성성 집단이 47.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직 중에서는 35.7%(15명)가 미분화 집단이었고, 행정 및 기타직종 중에서는 양성성 집단과 여성성 집단이 33.8%(23명)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표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분포 (N=257)

구분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체	88	34.2	41	16.0	44	17.1	84	32.7	
성별	남자	18	38.3	8	17.0	10	21.3	11	23.4
	여자	70	33.3	33	15.7	34	16.2	73	34.8
나이	20대	30	25.2	23	19.3	18	15.1	48	40.3
	30대	35	41.7	11	13.1	16	19.0	22	26.2
	40대	15	44.1	5	14.7	6	17.6	8	23.5
	50대	8	40.0	2	10.0	4	20.0	6	30.0
결혼	미혼	43	28.1	25	2	26	17.0	59	38.6
	기혼	45	43.7	16	15.5	17	16.5	25	24.3
학력	대졸	64	30.8	32	15.4	36	17.3	76	36.5
	대학원 이상	23	50.0	8	17.4	7	15.2	8	17.4
직종	간호직	43	33.6	24	18.8	10	7.8	51	39.8
	기타 의료직	9	47.4	1	5.3	3	15.8	6	31.6
	보건직	13	31.0	6	14.3	8	19.0	15	35.7
	행정 및 기타 직종	23	33.8	10	14.7	23	33.8	12	17.6

3. 대상자의 성 고정관념

병원종사자의 성 고정관념은 성별($t=5.607, p<0.01$), 나이($F=9.077, p<0.01$), 결혼상태($t=-3.827, p<0.01$, 기타 1명 제외), 직종($F=4.088, p<0.01$), 근무연수($F=5.41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 고정관념의 하위 요소별로 살펴보면, 가정적 성 고정관념의 차이는 남자가 $2.46(\pm 0.52)$ 점으로 여자 $2.01(\pm 0.56)$ 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t=5.019, p<0.01$), 50대가 $2.62(\pm 0.52)$ 점으로 20대 $1.99(\pm 0.58)$ 점, 30대 $2.07(\pm 0.55)$ 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F=7.817, p<0.01$).

또한 기혼인 경우 $2.22(\pm 0.59)$ 점으로 미혼인 경우 $2.01(\pm 0.56)$ 점에 비해 높았으며($t=-2.929, p<0.01$, 기타 1명 제외), 직종에 따라서는 보건직이 $2.24(\pm 0.67)$ 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행정 및 기타직종이 $2.22(\pm 0.53)$ 점, 간호직 $2.01(\pm 0.56)$ 점, 기타 의료직 $1.85(\pm 0.58)$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F=3.988, p<0.01$). 한편 20년 이상 근무한 대상자($2.38(\pm 0.57)$ 점)는 5년 미만 근무한 대상자($1.95(\pm 0.50)$ 점)에 비해 가정적 성 고정관념이 높은 수

준으로 측정되었다($F=4.307, p<0.01$).

사회적 성 고정관념은 나이($F=3.316, p<0.05$)와 근무연수($F=3.832,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50대의 사회적 성 고정관념은 $1.93(\pm 0.38)$ 점으로 30대의 $1.56(\pm 0.49)$ 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으며, 20년 이상 근무한 집단의 사회적 성 고정관념은 $1.92(\pm 0.43)$ 점으로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집단의 $1.59(\pm 0.49)$ 점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집단의 $1.56(\pm 0.48)$ 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외향적 성 고정관념은 성별에 따라 남자가 $2.54(\pm 0.70)$ 점으로 여자의 $2.16(\pm 0.67)$ 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3.454, p<0.01$), 나이에 따라서도 50대가 $2.74(\pm 0.65)$ 점으로 20대 $2.11(\pm 0.60)$ 점과 30대 $2.27(\pm 0.66)$ 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F=6.509, p<0.01$). 또한 결혼 상태에 따라 기혼인 경우 $2.43(\pm 0.64)$ 점으로 미혼인 경우 $2.11(\pm 0.62)$ 점에 비해 높았고($t=-3.909, p<0.01$, 기타 1명 제외), 근무연수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집단이 $2.42(\pm 0.60)$ 점, 20년 이상인 집단이 $2.50(\pm 0.66)$ 점으로 1년 이상 5년 미만 집단 $2.08(\pm 0.61)$ 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372, p<0.01$).

심리적 성 고정관념 역시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2.54(\pm 0.70)$ 점으로 여자의 $2.16(\pm 0.67)$ 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t=3.454, p<0.01$), 나이에 따라서도 50대가 $2.63(\pm 0.71)$ 점으로 20대 $2.11(\pm 0.65)$ 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188, p<0.01$), 결혼 상태에 따라 기혼인 자가 $2.38(\pm 0.70)$ 점으로 미혼인 자 $2.13(\pm 0.67)$ 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t=-2.874, p<0.01$, 기타 1명 제외), 직종별로 보건직이 $2.40(\pm 0.75)$ 점, 행정 및 기타직종은 $2.25(\pm 0.69)$ 점으로 간호직의 $2.08(\pm 0.69)$ 점에 비해 높았다($F=4.425, p<0.01$), 또한 근무연수에 따라서 20년 이상 근무한 집단이 $2.49(\pm 0.70)$ 점으로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집단의 $2.11(\pm 0.61)$ 점에 비해 심리적 성 고정관념이 높았다($F=3.286, p<0.01$).

지적 성 고정관념에서도 성별에 따라 남자는 $2.50(\pm 0.50)$ 점으로 여자 $2.05(\pm 0.50)$ 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고($t=5.607, p<0.01$), 50대는 $2.77(\pm 0.79)$ 점으로 20대 $1.98(\pm 0.70)$ 점, 30대 $2.04(\pm 0.77)$ 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8.121, p<0.01$). 기혼인 대상자는 $2.31(\pm 0.80)$ 점으로 미혼인 대상자의 $1.97(\pm 0.69)$ 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t=-3.565, p<0.01$, 기타 1명 제외), 행정 및 기타직종은 $2.38(\pm 0.75)$ 점으로 간호직 $1.98(\pm 0.75)$ 점에 비해 지적 성 고정관념이 높은 수준이었다($F=4.515, p<0.01$). 또한 20년 이상 근무한 집단이 $2.55(\pm 0.81)$ 점으로 1년 미만 근무한 집단의 $1.97(\pm 0.77)$ 점,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집단의 $1.96(\pm 0.68)$ 점,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집단의 $2.02(\pm 0.70)$ 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다($F=5.319, p<0.01$)[표 5].

4. 대상자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

병원종사자들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을 측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총 10문항 중 '일반인들에게 남자간호사는 낯설고 많이 생소하다' 문항과 '남자간호사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같은 병원의 특수 부서에서 주로 일할 것이다'의 두 문항의 점수는 각각 $3.27(\pm 0.87)$ 점과 $3.33(\pm 0.90)$ 점으로 다소 높은 점수가 나왔으며, '남자간호사는 투박하고 섬세하지 못하여 간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문항과 '간호사는 남자의 직업으로는 비전이 없어 보인다' 문항의 점수는 각각 $1.86(\pm 0.79)$ 점과 $1.89(\pm 0.82)$ 점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한편 '남자간호사는 대범하고 진취적이다' 문항에 $2.74(\pm 0.79)$ 점, '사람들은 남자간호사에게 간호받기를 불편해 한다' 문항은 $2.53(\pm 0.87)$ 점으로 중간 수준의 편견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7]은 병원종사자들의 특성에 따른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 점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병원종사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관련 특성에 따른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구분에 따른 성 고정관념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

[표 8]은 병원종사자들의 성역할 정체감 구분에 따른 성 고정관념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 점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양성성 집단의 성 고정관념은 $2.08(\pm 0.57)$ 점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여성성 집단 $2.13(\pm 0.49)$ 점, 남성성 집단 $2.15(\pm 0.52)$ 점, 미분화 집단 $2.17(\pm 0.51)$ 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F=0.424, p=0.736$)

또한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 점수도 미분화 집단이 $2.45(\pm 0.50)$ 점으로 가장 높고, 남성성 집단 $2.39(\pm 0.57)$ 점, 여성성 집단 $2.30(\pm 0.47)$ 점, 양성성 집단 $2.29(\pm 0.48)$ 점의 순으로, 양성성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F=1.823, p=0.143$).

6. 대상자의 성 고정관념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의 관계

[표 9]는 병원종사자들의 성 고정관념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성 고정관념의 하위요소인 가정적 성 고정관념($r=.376, p<0.01$)과 사회적 성 고정관념($r=.249, p<0.01$), 직업/외향적 성 고정관념($r=.431, p<0.01$), 심리적 성 고정관념($r=.438, p<0.01$), 지적 성 고정관념($r=.499, p<0.01$)은 각각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에서는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성 고정관념의 하위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단계선택 방법에 따라 성 고정관념의 각 하위요인을 투입하였을 때,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을 설명하는 변인으로는 '지적 성 고정관념'과 '직업/외향적 성 고정관념'이 최종 선택되었으며($F=48.526, p=0.002$). 본 모형의 설명력은 27.6%였다.

표 5. 대상자의 성 고정관념

(N=257)

변수	특성	가정적			사회적			직업/외향적		
		평균	표준 편차	t/F (Tukey)	평균	표준 편차	t/F (Tukey)	평균	표준 편차	t/F (Tukey)
성별	남자	2.46	0.52	5.019**	1.79	0.51	1.326	2.54	0.70	3.454**
	여자	2.01	0.56		1.67	0.58		2.16	0.67	
나이	20대 a	1.99	0.58	7.817** (d)a,b)	1.71	0.64	3.316* (d)b)	2.11	0.60	6.509** (d)a,b)
	30대 b	2.07	0.55		1.56	0.49		2.27	0.66	
	40대 c	2.22	0.54		1.80	0.49		2.36	0.61	
	50대 d	2.62	0.52		1.93	0.38		2.74	0.65	
결혼 상태***	미혼	2.01	0.56	-2.929**	1.69	0.60	-0.087	2.11	0.62	-3.909**
	기혼	2.22	0.59		1.69	0.51		2.43	0.64	
	기타	2.78	0.00		1.67	0.00		3.22	0.00	
학력	고졸 a	1.96	0.17	1.552	1.33	0.33	0.747	2.15	0.95	1.086
	대졸 b	2.07	0.57		1.70	0.59		2.22	0.63	
	대학원이상 c	2.23	0.62		1.65	0.46		2.37	0.69	
직종	간호직 a	2.01	0.56	3.988**	1.66	0.60	1.075	2.15	0.62	2.135
	기타 의료직 b	1.85	0.58		1.67	0.73		2.22	0.64	
	보건직 c	2.24	0.67		1.61	0.51		2.32	0.67	
	행정 및 기타 직종 d	2.22	0.53		1.79	0.48		2.38	0.65	
근무 부서	일반병동	2.01	0.60	0.972	1.71	0.59	0.943	2.13	0.59	1.338
	특수부서	2.12	0.52		1.81	0.68		2.18	0.66	
	진료지원부서	2.06	0.60		1.63	0.54		2.25	0.62	
	행정 및 기타부서	2.17	0.58		1.67	0.56		2.34	0.68	
근무 연수	1년 미만 a	2.02	0.68	4.307** (e)a,b)	1.85	0.83	3.832** (e)b,d)	2.11	0.62	4.372** (c,e)b)
	1년 이상 5년 미만 b	1.95	0.50		1.59	0.49		2.08	0.61	
	5년 이상 10년 미만 c	2.14	0.58		1.68	0.52		2.42	0.60	
	10년 이상 20년 미만 d	2.16	0.57		1.56	0.48		2.26	0.68	
	20년 이상 e	2.38	0.57		1.92	0.43		2.50	0.68	
가족이나 친척 중	남자간호사가 있다	2.13	0.62	0.149	1.53	0.51	-0.621	2.42	1.05	0.625
	남자간호사가 없다	2.09	0.58		1.69	0.57		2.24	0.64	
남자간호사와	근무경험이 있다	2.08	0.49	-0.203	1.66	0.59	-0.479	2.26	0.64	0.180
	근무경험이 없다	2.10	0.62		1.70	0.56		2.24	0.65	

*p<0.05, **p<0.01 (Tukey test),
***기타 1명 제외(t-test)

표 5. 대상자의 성 고정관념

(N=257)

변수	특성	심리적			지적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F (Tukey)	평균	표준 편차	t/F (Tukey)	평균	표준 편차	t/F (Tukey)
성별	남자	2.54	0.70	3.454**	2.50	0.50	5.607**	2.50	0.49	5.607**
	여자	2.16	0.67		2.05	0.50		2.05	0.50	
나이	20대 a	2.11	0.65	4.188** (d)a	1.98	0.70	8.121** (d)a,b	2.02	0.49	9.077** (d)a,b
	30대 b	2.24	0.73		2.04	0.77		2.11	0.52	
	40대 c	2.40	0.63		2.35	0.67		2.28	0.49	
	50대 d	2.63	0.71		2.77	0.79		2.62	0.51	
결혼 상태***	미혼	2.13	0.67	-2.874**	1.97	0.69	-3.565**	2.03	0.51	-3.827**
	기혼	2.38	0.70		2.31	0.80		2.28	0.52	
	기타	3.29	0.00		3.60	0.00		3.03	0.00	
학력	고졸 a	2.52	0.66	2.492	2.73	0.64	1.617	2.19	0.49	1.596
	대졸 b	2.19	0.67		2.08	0.77		2.10	0.52	
	대학원이상 c	2.42	0.75		2.21	0.73		2.25	0.55	
직종	간호직 a	2.08	0.69	4.425** (c,d)a	1.98	0.75	4.515** (d)a	2.03	0.51	4.088** (d)a
	기타 의료직 b	2.41	0.69		1.97	0.74		2.07	0.53	
	보건직 c	2.40	0.75		2.12	0.72		2.22	0.56	
	행정 및 기타 직종 d	2.37	0.61		2.38	0.75		2.28	0.50	
근무 부서	일반병동	2.11	0.71	2.071	1.97	0.79	1.473	2.03	0.54	1.221
	특수부서	2.11	0.75		2.04	0.72		2.10	0.50	
	진료지원부서	2.37	0.63		2.11	0.68		2.15	0.51	
	행정 및 기타부서	2.25	0.69		2.23	0.81		2.20	0.54	
근무 연수	1년 미만 a	2.08	0.85	3.286* (e)b	1.97	0.77	5.319** (e)a,b,c	2.03	0.62	5.412** (e)a,b
	1년 이상 5년 미만 b	2.11	0.61		1.96	0.68		1.99	0.45	
	5년 이상 10년 미만 c	2.21	0.58		2.02	0.70		2.17	0.47	
	10년 이상 20년 미만 d	2.41	0.73		2.26	0.78		2.20	0.53	
	20년 이상 e	2.49	0.70		2.55	0.81		2.42	0.54	
가족이나 친척 중	남자간호사가 있다	2.37	1.19	0.266	2.16	1.01	0.147	2.21	0.76	0.352
	남자간호사가 없다	2.23	0.68		2.11	0.76		2.13	0.52	
남자간호사와	근무경험이 있다	2.15	0.68	-1.148	2.11	0.74	0.004	2.11	0.46	-0.361
	근무경험이 없다	2.26	0.70		2.11	0.77		2.14	0.55	

*p<0.05, **p<0.01 (Tukey test),

***기타 1명 제외(t-test)

표 6.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 측정 결과

(N=257)

문항	평균	표준편차
남자간호사는 무뚝뚝하고 친절하지 않다	1,95	0,67
남자간호사는 대범하고 진취적이다	2,74	0,79
일반인들에게 남자간호사는 낯설고 많이 생소하다	3,27	0,87
남자간호사는 직업에 대한 편견 때문에 결혼하기 힘들 것이다	1,93	0,79
남자간호사는 투박하고 섬세하지 못하여 간호업무를 잘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1,86	0,79
남자간호사들은 의사들과 갈등이 많을 것이다	1,96	0,82
사람들은 남자간호사에게 간호받기를 불편해 한다	2,53	0,87
남자간호사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같은 병원의 특수 부서에서 주로 일할 것이다	3,33	0,90
간호사는 남자의 직업으로는 비전이 없어 보인다	1,89	0,82
남자간호사는 안정된 직업이 아니며 평생직이라고 인식되고 있지 않다	2,12	0,94

표 7. 대상자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

(N=257)

변수	특성	평균	표준편차	t/F (Tukey test)
성별	남자	2,45	0,52	1,346
	여자	2,34	0,50	
나이	20대 a	2,38	0,50	1,207
	30대 b	2,29	0,54	
	40대 c	2,34	0,44	
	50대 d	2,50	0,45	
결혼상태*	미혼	2,34	0,51	-0,772
	기혼	2,39	0,50	
	기타	2,40	0,00	
학력	고졸 a	2,37	0,51	0,159
	대졸 b	2,35	0,51	
	대학원이상 c	2,40	0,49	
직종	간호직 a	2,39	0,51	0,649
	기타 의료직 b	2,24	0,44	
	보건직 c	2,32	0,56	
	행정 및 기타 직종 d	2,34	0,46	
근무부서	일반병동	2,50	0,54	2,241
	특수부서	2,31	0,45	
	진료지원부서	2,29	0,47	
	행정 및 기타부서	2,34	0,51	
근무연수	1년 미만 a	2,32	0,51	0,797
	1년 이상 5년 미만 b	2,33	0,52	
	5년 이상 10년 미만 c	2,41	0,51	
	10년 이상 20년 미만 d	2,29	0,49	
	20년 이상 e	2,45	0,45	
가족이나 친척 중	남자간호사가 있다	2,48	0,59	0,549
	남자간호사가 없다	2,36	0,50	
남자간호사와	근무경험이 있다	2,37	0,49	0,277
	근무경험이 없다	2,35	0,51	

*기타 1명 제외(t-test)

표 8.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구분에 따른 성 고정관념,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 (N=257)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 고정관념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		
				평균	표준 편차	F(p)	평균	표준 편차	F(p)
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88	34,2	2,08	0,57	0,424 (0,736)	2,29	0,48	1,823 (0,143)
	남성성	41	16,0	2,15	0,52		2,39	0,57	
	여성성	44	17,1	2,13	0,49		2,30	0,47	
	미분화	84	32,7	2,17	0,51		2,45	0,50	

표 9. 성 고정관념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의 상관관계 (N=257)

	가정적	사회적	직업/외향적	심리적	지적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
가정적	1					
사회적	.508**	1				
직업/외향적	.561**	.408**	1			
심리적	.545**	.370**	.656**	1		
지적	.519**	.350**	.595**	.718**	1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	.376**	.249**	.431**	.438**	.499**	1

**p<0,01

표 10. 성 고정관념이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에 영향 (N=257)

모형	B	Std. Error	β	t	p
상수	1,472	.100		14,754	.000
지적 성 고정관념	0,247	.044	.375	5,644	.000
직업/외향적 성 고정관념	0,162	.052	.208	3,132	.002

R² = .276, F=48,526**
tolerance= .646, VIF =1,548, d=2,063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병원종사자들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이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남자간호사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소재의 일 상급종합병원 종사자 25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종사자들의 성 역할 정체감을 분석한 결과

남성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여성성은 나이와 학력, 직종, 근무연수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결혼 상태에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성 역할 태도의 차이가 있었던 임나현과 하규수[26]의 연구결과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박은옥과 박영숙[27]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성 역할 정체감의 차이가 있었던 선행연구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한편 성 역할 정체감에 따라 병원종사자들을 분류하였을 때, 양성성 집단이 34.2%(88명)로 가장 많았고, 미분화 집단은 32.7%(84명), 여성성 집단이 17.1%(44명), 남성성 집단이 16.0%(4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성 역할 정체감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 그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은아[28]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성 역할 정체감 분포는 양성성 집단이 가장 많았고,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형숙 등[17]의 연구에서도 양성성 집단과 미분화 집단이 여성성 및 남성성 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성 역할의 남성성은 독립적, 지배적인 특성을, 여성성은 따뜻하고 민감한 특성을 나타내며[11], 양성성 정체감은 한 개인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이다[27]. Bem[29]은 한 개인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두 특성을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가질 수 있으며, 양성성을 가진 개인이 모든 행동 특성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 매우 적응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병원종사자 중 양성성 집단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분화 집단 역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성 역할 정체감은 고정불변의 특성이 아닌 개인의 발달단계나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이 있다[15]. 따라서 병원종사자들의 직무교육 등 사회화 과정에서 양성성을 촉진하는 전략을 통해 양성 평등적인 조직문화 구축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병원종사자들은 성별과 나이, 결혼 상태, 근무연수 및 직종에 따라 성 고정관념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자보다 남자가, 나이가 많고 기혼인 경우, 근무연수가 오래된 경우 성 고정관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근무연수가 길어지므로 나이가 많고 근무연수가 오래된 경우 성 고정관념이 높게 나온 것은 논리적인 결과이며, 직종별로는 ‘행정 및 기타 직종’의 성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22]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고, 기혼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또 남성이 강한 성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소정[30]의 연구에서는 고령이며 기혼자일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았지만, 성별에 따른 성 고정관념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연구 결과들 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녀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은주[31]의 연구에서도 남자간호사의 성 고정관념이 여자간호사의 성 고정관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동일[22]은 성별 변수가 성 고정관념에 깊은 관계가 있음은 별다른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 간의 차이는 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변화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으며, 연구 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와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성 고정관념이란, 남성이나 여성을 인지 또는 평가할 때 그의 개인적 특성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단지 생물학적으로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의거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적 특성 혹은 여성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상대적으로 경직되고 과잉단순화된 개념을 의미한다[22]. 다수의 연구에서 고령이고 기혼일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았던 결과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22][30]. 김동일[22]의 연구 결과 성 고정관념에 대한 영향은 성별보다 권위주의가 더 강한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조혜자[32]는 성 고정관념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면화되며, 사회적 상황이 끊임없이 성 고정관념을 확인해주는 자극들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고령일수록 근무 연수 또한 많아지게 되며 관리직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무 연수 및 직위에 따른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성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적절한 콘텐츠를 포함하여 반복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남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자간호사의 고용이나 급여에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만[33],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고, 이직의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34][17], 간호직을 여성에 적합하다고 고정적으로 인식하는 현상은 남자간호사의 역할을 제한할 뿐 아니라 양성 평등적 직업으로 성장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35]. 따라서 의료 현장에서는 성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양성 평등적 조직문화 구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병원종사자들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남자간호사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같은 병원의 특수 부서에서 주로 일할 것이다’와 ‘일반인들에게 남자간호사는 낯설고 많이 생소하다’는 문항에서 높은 수준의 편견을 보였다.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의 남자간호사들이 마취과, 수술실, 회복실, 중환자실, 응급실, 의사업무보조인력(PA) 등의 특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5][36]. 남성의 강한 체력과 객관성, 집중력 등의 특성이 특수부서 업무에 도움

이 되는 측면도 있겠으나[5], 한편으로는 간호 실무에서 성 역할과 관련된 어색함을 우려한 성 고정관념에 따른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인 병원 종사자들은 남자간호사들이 주로 특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아왔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편견을 더욱 강화하고, 일반인들에게 남자간호사는 낯설고 생소한 존재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료 남자간호사들이 주로 특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아온 남자간호사들은 당연히 특수 부서에서 근무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문 간호사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수 분야의 근무는 특권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순수한 간호업무가 아닌 의사업무보조(PA)인력으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들은 소속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남자라서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기회조차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3][5]. 임상 현장에서 신규간호사들의 요청이 부서배치 시 100%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남자간호사가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서배치에서 차별이 없어야 하며, 병원의 특수 부서에 남자간호사가 집중되는 현상은 지양해야 한다. 의료 현장에서 성불균형이 해소될 때, 그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남자간호사의 수적 증가가 다양한 간호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간호 인력 확충 및 간호수준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5].

넷째, 병원종사자들 중 양성성 집단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성 고정관념과 남자 간호사에 대한 편견이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인이나 병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 역할 정체감에 따른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형숙 등[17]의 연구에서 양성성과 남성성 집단의 성 고정관념이 높게 측정되었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성 역할 정체감은 개인의 사고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13], Bem[29]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두 특성이 동시에 높은 양성성을 가진 개인이 모든 행동 특성에서 융통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역할 정체감을 조사한 연구에서 양성성 집단의 적응수준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미분화 집단의 적응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15],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한 김숙남 등[13]의 연구에서 양성성 집단과 남성성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생의 의미가 높다고 하였다. 이렇듯 다수의 연구에서 양성성 성 역할 정체감은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양성성 집단의 성 고정관념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던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 역할 정체감에 따른 성 고정관념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므로, 대상자와 표본수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 고정관념은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성 고정관념의 하위요인은 지적 성 고정관념과 직업/외형적 성 고정관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 차별적 고정관념이 여성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쳤던 금희조와 김영경[37]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지 하다. 일반적으로 남성적인 영역으로 규정된 정치 리더로서의 역할에 여성은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과 여성 고유의 영역인 간호 분야에 진출한 남자간호사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 고정관념에 따른 동일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이 다수를 이루는 직업에 도전하는 여성보다 여성이 다수를 이루는 직업에 도전하는 남성을 사회에서는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34]. 남자간호사들은 주위의 시선과 관심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간호직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였다[5].

본 연구에서 타 직종에 비해 ‘행정 및 기타직종’의 성 고정관념이 높았는데, 부서배치, 인사 등을 직접 집행하는 직종이 ‘행정 및 기타직종’임을 고려할 때, 병원종사자들의 성 고정관념은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과 그로 인한 부서배치 등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결국 성 고정관념으로 인한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주위의 남자간호사들을 보면서 남자간호사들은 불안과 이직의도가 증가하게 되고, 여자간호사들은 일정 정도의 임상경력을 쌓은 후 타 직종으로 이직하는 남자간호사들에 대한 배타 감정을 느끼게 된

다[3][38]. 따라서 의료기관은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양성 평등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성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간호조직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남자간호사의 수적증가가 간호계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자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구성원들이 편견 없이 그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 역할 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이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종사자들의 성별, 나이, 결혼상태, 근무연수 및 직종에 따라 성 역할 정체감 분포에 차이가 있었으며, 여자에 비해 남자가, 나이가 많고 기혼일수록, 근무연수가 길수록 높은 수준의 성 고정관념을 보이고, '간호직', '기타 의료직', '보건의직'에 비해 '행정 및 기타직종'의 성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병원종사자들은 일반인들에게 남자간호사는 낮설고 생소한 존재이며, 주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같은 병원의 특수 부서에서 일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성 고정관념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은 양성 성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성 고정관념은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양성 평등적인 조직문화 구축 노력이 필요하며, 양성성을 지향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임상 현장에서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남자간호사 부서 배치에 있어 성 불균형을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한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병원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

리나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을 측정할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지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성 역할 정체감에 따른 성 고정관념,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의 관계를 확인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남자간호사들의 부서배치 현황에 대한 전국단위의 조사를 통해 남자간호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과 편견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을 반복하여 측정하고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의 타당화 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0/2017021002036.html, 2018.10.11.
- [2]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03/08/2016030800685.html, 2018.10.11.
- [3] 손행미, 고문희, 김춘미, 문진하, 이명선, “남자 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제33권, 제1호, pp.17-25, 2003.
- [4] 신자현, 서명희, 이명인, “융복합시대의 간호직과 성: 남자간호사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3호, pp.287-297, 2016.
- [5] 안경하, 서지민, 황선경, “남자 임상간호사의 경험에 관한 내용분석,” 성인간호학회지, 제21권, 제6호, pp.652-665, 2009.
- [6] 최경혜, 김현주, 김주현, 남은숙, 현혜진, 강현옥, 윤성자, 손현정, 김현정, 황아름, 김원희, “간호행위를 거부당한 남자간호사의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4권, 제1호, pp16-28, 2018.
- [7] 신흥임, “고정관념의 위협과 인지적 과제의 수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2권, 제3호, pp.15-32, 2008.
- [8] 김나리, *남성 지배 학과 여대생과 여성지배 학과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갈등과 진로 정*

- 체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9] 김희정, "TV광고에 나타난 성역할 이미지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제21권, 제4호, pp.7-68, 2007.
- [10] 김원홍, 권희완, 이인숙, *오늘의 여성학*,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 [11] G. Ryan, C. Dolphin, U. Lundberg, and A. L. Myrsten, "Sex role patterns in an Irish student sample as measured by the bem sex role inventory(comparisons with an American sample)," *Sex roles*, Vol.17, No.1-2, pp.17-29, 1987.
- [12] 김지현, 하문선, 김복환, 하정혜, 김현정, "한국 단축형 성역할 척도(KSIR-SF;Korean Sex Role Inventory-Short Form)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제17권, 제1호, pp.125-147, 2016.
- [13] 김숙남, 신경일, 이정지, 최순옥, "여성가장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생의 의미수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8권, 제2호, pp.190-200, 2002.
- [14] 김영숙, 정복례,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8권, 제2호, pp.310-319, 2007.
- [15] 최임숙, 김충희,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행동의 차이," *교육심리학회*, 제18권, 제1호, pp.131-143, 2004.
- [16] 정경연, 김홍석, 이정희,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별에 따른 방어유형,"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5호, pp.21-46, 2012.
- [17] 박형숙, 하재현, 이미현, "남성 간호사의 성역할 정체감, 성고정관념,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pp.2962-2970, 2014.
- [18] 이경주, 김미영, "남자간호사의 성역할갈등,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제26권, 제1호, pp.46-57, 2014.
- [19] 염은이, 서금숙, "남자간호사의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pp.794-804, 2016.
- [20] 김혜숙,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제1호, pp.1-33, 1999.
- [21] 김혜숙, "고정관념 및 편견과 인간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제9권, pp.83-101, 2002.
- [22] 김동일, "한국인의 성 고정관념과 권위주의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63권, 제2-3호, pp.45-58, 1993.
- [23] 김동일, *성의 사회학*, 문음사, 1991.
- [24] 이동재, *남자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성격체감, 성 고정관념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25] 송미승, 위휘, 박영례, "남자간호대학생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보건과 사회과학*, 제38권, pp.37-67, 2015.
- [26] 임나현, 하규수,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1호, pp.199-214, 2012.
- [27] 박은옥, 박영숙,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건강행위,"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5권, 제3호, pp.362-378, 1999.
- [28] 이은아, "중년기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부부갈등 및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07-126, 2006.
- [29] S. L. Bem,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42, pp.155-162, 1974.
- [30] 김소정,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기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4권, 제1호, pp.89-111, 2013.
- [31] 박은주, *남녀간호사의 성 고정관념 비교*,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32] 조혜자, "성 고정관념: 왜 끈질긴가?,"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6권, 제3호, pp.107-125, 2001.
- [33] C. L. Williams, "Hidden advantage for men in nursing,"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Vol.19, pp.63-70, 1995.

- [34] 안은성, *남자간호사의 성 고정관념,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을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5] 박정모, 이숙정, "간호학 전공 여학생과 문과계 전공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 비교,"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0권, 제4호, pp.412-420, 2009.
- [36] 안민권, 김현경, 정석희, 이명하, "남자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 *간호행정학회지*, 제21권, 제2호, pp.203-211, 2015.
- [37] 금희조, 김영경, "전통적 성 고정관념과 여성 정치인에 대한 평가: 미디어 이용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2권, 제1호, pp.7-43, 2008.
- [38] 성지숙, 염은이, "여자간호사가 인식하는 남자간호사의 유형 및 특성: Q방법론적 접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pp.572-584, 2016.

저 자 소 개

최 주 희(Ju-Hee Choi)

정회원



- 2003년 2월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2010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생명과학대학원 간호학석사(호스피스전공)
- 2017년 2월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인문사회의학전공 박사수료

▪ 2003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병원 간호사

<관심분야> : 긍정심리학, 성 고정관념, 의료진달체계, 환자-의사 간 진료기록공유(오픈노트; Open Notes)

장 철 훈(Chul-Hun Chang)

정회원



- 1986년 2월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학사)
- 1999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의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관심분야> : 체외진단키트 개발, 의학 교육,

김 성 수(Sung-Soo Kim)

정회원



- 1986년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학사)
- 1989년 : 미국 오하이오대학교 사회심리학(석사)
- 2000년 :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의료사회학(박사)

- 현재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교실 주임교수
- 현재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커뮤니케이션센터장

<관심분야> : 의료커뮤니케이션, 환자만족도, 공감, 신경심리면역학, 보건교육